“호국불교 상징 금산사 뇌묵처영 스님 조명돼야”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 개최

‘금산사와 호국불교’주제로
발제자들, ‘처영스님’ 주목
손꼽히는 의승장이자 학승
여전히 부족한연구 아쉬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사회연구소는 10월 5일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뇌묵처영 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금산사를 중심으로 1000여명의 의승을 이끌며 활약했을 뿐 아니라, 불교사 전개과정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승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그의 생몰연도에 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심화연구를 통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가 10월 5일 ‘금산사와 호국불교’를 주제로 개최한 2021년 호국불교연구 학술대회에서, 발제자들은 금산사의 호국불교사적 조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뇌묵 처영 스님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뇌묵 처영 스님은 임진왜란때 활약했던 의승장으로서의 공적 뿐 아니라 학승으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지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료 및 연구는 극히 부족하다.

‘뇌묵 처영의 의승활동과 그 공적’을 주제로 발제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뇌묵처영 대사의 의승활동 경력이나 불교사적 위상 등을 감안한다면 행장 편찬이나 문집 편찬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그의 생몰연도에 관한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뇌묵 처영 대사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불교사 전개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승”이라며 “특히 처영이 1635년 ‘금산사사적’을 편찬한 해안 스님의 스승임에 주목한다면 관련 자료의 부재현상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뇌묵 처영 스님이 당시 이미 고승으로 인정받았던 학승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처영 스님은 유정 스님과 함께 서산대사 제자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유정문집의 발문을 지어줄 만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소요 태능, 환성 지안 스님 등 금산사 고승들이 그의 영향 아래서 성장했고 당대의 문사들과 교류하며 주시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이러한 면모는 그가 의승으로서의 활약을 넘어, 출가사문으로서 상당한 자량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처영의 출가 도량은 금산사이며 그가 처음 의승 1000명을 모집해 궐기한 장소도 금산사였다는 ‘금산사지’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금산사 호국불교 성지의 정립과 계승’ 주제 발제에서 의승장 뇌묵 처영 스님의 제향과 의승군 활동의 현창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최근 금산사 경내에 건립된 처영문화기념관에 대해 “호국불교의 사격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한데 이어, 금산사와 처영 스님에 대한 학술연구의 확대 및 의승활동을 드러낼 추모비와 사적비 등 건립, 나아가 자료 집적과 컨텐츠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학술대회 등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가 집적되듯이 제향과 현창 사업을 전개하면 교계와 사회적 인식이 따르고 사격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해 치사했다. 스님은 “백제 법왕 원년(599)에 창건된 금산사는 고려초 혜덕 왕사가 주석했던 유가종 및 화엄 사상의 중심도량이며 미륵신앙의 성지”라며 “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뇌묵당 처영 스님이 활동했던 호국도량이자 호남불교의 상징적인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산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스님들과 노묵 처영 스님의 숭고한 구국제민 정신을 후대에 올곧게 전하기 위해 처영기념관을 경내에 건립했지만, 여전히 국가와 민초들과 함께한 금산사의 역사가 국민과 불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다”며 “오늘 학술대회가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국가 위기상황을 맞아 종교적 가치와 대의적 신념 사이의 갈등을 무릅쓰고 민족공동체를 수호한 호국의승들의 헌신과 금산사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치사했다.

“성범죄 전과자 이사장 용납안돼”

선학원미래포럼, 10월 5일 성명
법진 스님 이사장 재선출에 반발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던 법진 스님이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으로 재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이 법진 스님의 이사장직 ·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로 구성된 선학원미래포럼은 10월 5일 ‘성범죄 전과자 최종진(법진) (재)선학원 4선 이사장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창건주 · 분원장은 최종진(법진)을 결코 선학원 이사장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명확히했다.

창건주 · 분원장 스님들은 “여직원 성추행 죄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종진(법진)이 3연임의 이사장 임기를 채우더니, 이제 또 다시 4선의 이사장으로 선출됐다”며 “이런 상식을 파괴하는 해괴한 일이 청정승풍을 수호하고 ‘정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선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최종진(법진)은 그를 선출한 무리들의 두목은 될지언정 결코 (재)선학원의 이사장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선학원미래포럼에 따르면 선학원은 정관상 임원 자격을 ‘덕망이 높은 승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명백하게 정관을 어긴 것이란 지적이다. 이 뿐 아니라 ‘승려관리규정’에는 ‘부정과 비행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는 제적, 자격정지 등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승려법’에는 ‘파렴치범의 전과자’는 승려자격에 결격사유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분원관리규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창건주 권한을 박탈당하고 분원장에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들은 “원천적으로 승려자격이 없고, 창건주나 분원장조차 할 수 없는 성범죄 전과자가 어찌 이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데 이어, “선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최종진(법진)은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라. 인적쇄신은 성범죄자 전과자를 징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창건주 · 분원장은 최종진(법진)이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선학원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법적, 행정적 조치는 물론 집회와 시위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9월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前이사장 법진 스님을 2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송지희 기자

사회적 물의 일으킨 법인에 시정명령 가능

조계종, ‘법인법’ 개정안
총무원장 행정처분 강화

종단등록법인에 대한 조계종의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은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종단 위상을 실추시킨 종단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9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단등록법인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시정명령 후 1개월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단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적용범위는 △종단의 사찰 또는 복수의 사찰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연해 설립한 법인 △중앙종무기관이 재산을 출연하거나 모련해 설립한 법인 △종단 승려가 설립한 법인이다. 개정안은 △종단 소속 승려로 구성돼 있고 종단의 사찰 또는 승려가 양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종단 사찰과 종무기관은 미등록법인에 대해 예산 및 행정지원 등 일체의 지원을 할 수 없도록 권리제한 조항도 신설했으며, 부칙으로 개정안 공포 이전에 설립된 법인은 종단 절차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키로

조계종에 사과공문 발송
‘천진암성지’ 명칭 중단

경기도 광주시가 종교편향 논란이 일었던 ‘천진암 성지 광주순례길’ 명칭사용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를 약속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광주시는 10월 5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공문을 보내 종교편향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또 문제가 됐던 ‘천진암성지 광주순례길’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부장 원경 스님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광주시의 ‘천진암 성지 광주 순례길’ 사업추진과 관련, 광주시에서 해당 사업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사과와 함께 명칭 수정 및 사업 재검토 결정을 해준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단은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족의 역사와 우수한 전통문화콘텐츠가 바르게 해석,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종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종교사회에서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정책이 초래하는 소모적인 국민갈등을 예방할 기구와 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현 정부와 모든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해당 순례길이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과 불교계가 운영해온 나눔의 집을 포함, 이를 ‘천진암성지 광주순례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공식적인 사과 및 해명, 본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공문으로 요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27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 주 명 성
율 주 일 진
학 장 진 광
주 지 운 산
신도회장 박순곤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